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2월 5일)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우리 동네 장은 종로 장금이가 우리의 전통 장문화를 전수하는 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의 전문노인자원 봉사단 종로&장금이 봉사단이 3월 11일 종로노인복지관 5층 장카페, 장마당에서 장독분양사업 '우리동네 장 담그는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관장 정관 스님과 특강을 진행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전문가 동원 스님, 지역주민 등 2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장을 담갔다. 행사는 4월 28일 '장독분양사업 II – 우리동네 장 가르는 날(된장, 간장 분리하기)', 11월 '장독분양사업III – 장독 비우기'로 이어질 예정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비구니 '복지 · 교육' 확대 나선다

전국비구니회, 3월 9일 종무회의서 결의

6천여 스님 조사 결과 공유
요양 · 주거 복지 요구 높아
'공동체' 통한 해법 요구해
시설 확충 · 신설 본격 추진
포교 · 교육 소임 부서 확정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국비구니회가 전수조사를 토대로 올해 비구니복지 확대를 위한 승가공동체 실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분야별 요구에 대한 실무부서를 정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실천에 착수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9일 제14차 종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사업보고 및 감사결과 공유에 이어 올해 사업계획 및 주요일정을 논의, 확정했다.

설문지 의견 수렴결과 실행의 건은 전국비구니회가 지난해 말 비구니 스님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의 후속안건으로 주목됐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비구니 스님들은 특히 비구니 복지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노후와 요양, 주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요양복지를 선택한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노후복지가 18.3%, 주거복지가 15.5%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구니 승가공동체에 대한 요구다. 비구니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승가공동체를 답한 스님이 상당수였으며, 기타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승가공동체를 언급한 스님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와 관련 "비구니스님들이 수행과 포교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1, 2곳 승가공동체를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지회의 협조를 받아 독거 노스님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국비구니회는 올해 공동체 시설 확충 및 신설에 대한 계획 수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존 사찰을 중심으로 공동체 신청을 받아 현실에 맞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운영규칙, 청규, 시설보완비용 등을 제공하고 대중을 모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동체 신설을 위한 자금 및 공동체 시설 보완 기금 마련, 공동체와 요양시설간 결연 및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안 마련에 나선다.

본각 스님은 "복지와 수행환경 안정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승가공동체 실현이 중요하다는 공의를 모아 현재 비구니청규 및 운영규칙, 환경조성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기본틀이 확정된다면 점차적인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임기 중 서너곳이라도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소임자 스님들부터 모두가 공의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전국비구니회는 상반기 중 총무부 주도로 청규나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하반기 무렵 이를 공유해 승가공동체 실현가능성이 있는 기존 사찰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설문결과에 따르면 비구니스님들은 지역별 · 영역별 포교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도 높았다. 비구니스님들이 특히 선호하는 포교분야는 명상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상담이 13.5%, 복지 11.0%, 학생포교 9.2%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양하게 표출됐다. 명상(다양한 수행법, 수행 지도방법), 상담심리, 사찰경영, 호스피스, 인성 관련 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국비구니회는 교육부 주도로 현재 진행중인 CPE 교육과 연계해 전법단 활용 및 전문교육 실행방안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지방 교육의 확대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포교 활성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문화포교부 주도로 운영위원회 산하 지회와 연계해 각 포교 노하우 공유 및 강연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사찰 내 소임자 등 인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소임플랫폼(기획부 · 총무부), 상담창구 개설(사회복지부 · 총무부), 기존선원의 상설개방 비구니 수행처 활용방안(기획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회원스님과의 소통을 위해 매월 1회 웹소식지 발송(문화포교부 · 총무부)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종무회의에서는 올해 첫 총회 일정을 3월 29일 오후 1시 개최키로 했으며, 원로회의 일정은 4월 중 집행부 위임으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2021년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공로자 발굴 및 문화행사를 위한 준비, 회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회관 건립 20주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사업부 주도로 각종 돌봄 사업 및 복지 관련 사업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결의했다.

강남서 걷기 명상하며 코로나19 극복 해볼까

참선지도자協 · 명상총협회 · 강남구청 공동으로

4월 9~11일 강남구 일원에서
명상 포럼 · 양재천 걷기 대회

한국참선지도자협회(이사장 의정 스님)와 한국명상총협회(회장 각산 스님)가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과 손잡고 4월 9~11일 3일간 강남구민회관과 양재천 일대에서 '제2회 대한민국 명상포럼 및 명상대강연과 양재천 걷기 명상 대축전'을 펼친다.

이어 한국명상총협회 회장 각산 스님(참불선원장)은 "2년 전 동국대서 제1회 명상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동국대 인근인 남산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무려 5천 명이 참여했다"며 "올해는 힐링 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 강남구청의 후원으로 강남 양재천서 걷기 명상 대회를 마련한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 주최측인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인원이 많은 만큼 정부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행사를 원만히 치르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첫째날(4월 9일)에는 다양한 주제의 명상 강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국대표적 선승인 정찬 스님(前 전국 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한국참선지도자협회 이사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한국 MBSR 안희영 연구소장의 '내가 경험한 서구의 마음챙김 명상' (오후 1시) △해남 미황사 주지를 역임한 금강 스님의 '선명상 수행법의 길잡이/선가귀감' (오후 2시)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의 '춤추는 인생! 아름답다! 잠깐 멈춤' (오후 4시) △행불 선원장 월호 스님의 '생로병사 해탈법'을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각산 스님 진행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둘째날(4월 10일)에는 강연 이외에 걷기명상 행사가 마련된다. 오전 10시부터 양재천 특설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 국민의사인 이시형 박사와 간화선 박사 학위자인 천주교 신부 베르나르 신부(서명원), 주최자인 각산 스님의 명상대강연이 열린다.

명상대강연 후에는 각산 스님의 지도로 약 1시간 정도 양재천 걷기명상도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명상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자리를 강남구민회관으로 옮겨 △베르나르 신부의 '참선속의 행복명상법' △이시형 박사의 '베르나르 신부의 수양과 명상' △구영선(삼성 수석엔지니어 명상가) 씨의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명상' △정과 스님(수좌회 선승)의 '왜 수행하는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펼쳐진다.

마지막 날(4월 1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강남구민회관서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이란 주제로 참선명상 세미나가 개최된다. 각산 스님의 진행으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전현수 박사의 초기경전에 입각한 깨달음의 발제와 함께 선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정과 스님, 백성호 중앙일보 기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참석자는 대한민국명상포럼(02-451-0203)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 원, 단 양재천 걷기명상은 무료다. **김주일 기자**

봉축표어 "희망 ·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봉축위원회, 공모서 선정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에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Light the Lantern of Hope and Healing)"가 선정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불기 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450건 표어 중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봉축위에 따르면 올해 봉축표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속에서 부처님 자비광명을 담은 등을 밝힘으로써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선정됐다.

봉축위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는 개개인의 건강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내용을 담아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겠다"며 "국민 모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 발원한다. 모두 함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